

# 온가족 즐길 도심 속 인형극 향연

### 파랑새, 금남로공원 야외무대 26일부터 '아트드림인파크' 별술인형극단 등 10개팀 참여 서커스·무용·마술 등도 펼쳐져

광주 도심 속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인형극의 향연이 펼쳐진다.

㈜교육극단 파랑새가 오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금남로공원 야외무대에서 도심속의 인형극 축제 아트드림인파크(Art Dream In Park)를 연다.

올해 6회를 맞이한 인형극축제 아트드림인파크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한국인형극협회가 후원한다.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시각예술·미술·교육적 활동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죽어가는 도심공원을 무대로 삼아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 영역을 넓히고 힐링의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는 별술인형극단, 인형극단 얘기똥풀, 교육극단 파랑새, 엘비스 매직, 인형극단 친구들, 극단 보물 등 총 10개 팀이 참여한다.

축제 첫 날인 26일에는 별술인형극단이 '위풍당당 신녀와 살림왕 나무꾼'을 무대에 올린다. 전래동화 '신녀와 나무꾼'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신녀와 나무꾼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고정된 성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게하며 양성 모두 평등한 성가치관 확립을 전한다.

이어 박정옥무용단의 특별공연이 열리며, 인형극단 얘기똥풀은 '호랑이와 도둑놈'을 선보인다. '호랑이와 도둑놈'은 전래동화 '꽃감과 호랑이'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잘난척하는 호랑이와 도둑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풍자극이다.

27일에는 엘비스매직이 다양한 풍선 퍼포먼스와 마술을 선보인다. 손버블체험, 불저글링 등도 준비했다. 같은 날 교육극단 파랑새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룬 '물의 요정 방울이'를 무대에 올린다.

7월10일 첫 공연은 인형극단 친구들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다. 이 작품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목각줄 인형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아기를 간질히 원하다 공주를 얻게 된 왕과 왕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며, 공주와 왕자의 진실한 사랑의 힘을 함께 전한다.

이어 펼쳐지는 인형극단 아토의 '호랑이 뱀속 잔치'는 전통적인 잔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맞닿는 각 지방의 사투리를 접할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과 함께 한삼(汗衫)을 휘저으며 추는 한삼춤을 추는 시간을 마련했다.

극단 보물의 '목각인형 콘서트'는 개성 넘치는 목각 인형들이 펼치는 유니버설 식 년버벌(non-verbal) 마리오네트 극으로 낯설면서도 친근한 음악과 신나는 서커스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학교폭력예방을 다룬 극단 도깨비의 '꼭

꼭 약속해', 목각줄 인형으로 악기연주, 소 싸움 등을 선보이는 빼빼로인형극회의 '줄인형콘서트', 외발자전거, 요술풍선, 화살 등으로 다양한 묘기를 펼치는 다이스크의 '스트리트 서커스' 등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만들기체험, 페이스페인팅체험 등이 준비되며, 포토존도 마련한다. 7월17-18일에는 인형극워크숍도 열린다.

문의 062-514-4328, 010-2218-700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5회 인형극축제 모습.



인형극축제 아트드림인파크가 오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금남로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공연 모습.

## 자연에 대한 풍경·경외감 담담한 시어로 풀어내

### 하순출신 손형섭 시인 '만추' 펴내

하순 출신 손형섭 시인(목포대 명예교수)이 팔순을 맞아 세 번째 시집 '만추' (문화예술사)를 펴냈다.

지난 2019년 두 번째 '파도'에 이어 2년 만에 출간한 창작집에는 팔순의 의미로 80편의 시가 담겨 있다. 그동안 문단에 발표한 작품 33편과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 47편의 시가 묶여 있어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볼 수 있다.

이번 시집에는 살아오면서 느낀 자연에 대한 경외감, 다시 말해 사시사철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

보는 화자의 담담한 심상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살아 숨 쉬는 아픔과 즐거움, 그리움을 자연에 빗댄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조록빛 휘어 감고/ 한 세대 품미하더니/ 끝내 붉은 낙엽 되어/ 불붙고 있구나/ 불타는 단풍나무/ 산골마다 불길 치솟으며/ 가을이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중략)// 새벽에 물길 울려/ 새싹 틔우려고/ 고운 단풍 웃음/ 흠뻑 털어 내고 있구나."

표제작 '만추'는 붉은 단풍을 모티브로 자연의

소리를 형상화한 시다. 무성한 초목이 고운 단풍으로 바뀌기까지의 여정을 간결한 시어로 노래하고 있다. 어린 새싹이 낙엽이 되어 낙화하는 과정은 한편의 인생 드라마에 비견된다. '만추'라는 시어는 팔순을 맞이한 화자의 삶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일기 시인은 "시인은 늦가을 나무의 쇠락을 허무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한 과정으로 조명하고 있음이 아재롭다"고 평한다.

한편 손 시인은 2017년 '문학예술'로 등단했으며 한국예술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두 개의 눈' 공연 장면

## 문화전당 '두 개의 눈' 여우락(樂) 페스티벌 개막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판소리 미디어극 '두 개의 눈'이 국립극장 '2021 여우락(樂)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음악극 '두 개의 눈'이 국립극단이 주최하는 '2021 여우락(樂) 페스티벌' 개막 작품으로 뽑혀 오는 7월 2일과 3일 국립극단 달오름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작품이 국립극장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개의 눈'은 전통 판소리극 '심청가'를 현대적 영상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효녀 심청이 아닌 눈 먼 흠아비 심학규를 중심으로 '눈 먼 자'와 '눈 뜬 자'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판소리에 양악기를 더하고, 전통에 전자음악을 가미했

다. 극에는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이색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이를 위해 공연단체 '무토(MUTO)'와 판소리 창작 공동체 '입과손 프로젝트'가 공동 연출·출연해 판소리에 대중음악을 입히고 발광 다이오드(LED)와 레이저조명으로 감흥을 선사한다. 패션 디자이너 김민주는 의상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더한다.

앞서 '두 개의 눈'은 지난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장르 간 융합과 실험과정을 거쳐 지난해 ACC 극장1에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한편 ACC는 오는 9월 4-5일 ACC 예술극장에서 '두 개의 눈'을 다시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박주현)이 신규 협력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광주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까지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7월 1일 오후 4시까지이며, 응시원서와 자유곡악보를 이메일(52911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7월 3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실시하며 실기전형(자유곡 1곡)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진다.

최종 합격자는 7월 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협력단원으로 활동하며 정기공연 수

당지급, 단복 및 간식 제공, 공연 참여시 봉사활동 인증, 음악캠프 및 각종 워크숍 비용 지원, 각종 초청공연 체제 비용 지원, 음악&영역 교육 프로그램 무료 수강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연습일정은 학기 중 매주 화·목요일(오후 6-9시), 방학 중 매주 월-금(오전 9시30분-낮 12시 30분)이다.

합창단은 2022년 특별기획 영어오페라 '피노키오'를 시작으로 매년 1편씩 영어 오페라를 제작할 예정으로 종합예술승인 오페라를 활용해 음악, 연어, 연기, 안무 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한다. 문의 062-613-82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무등도서관 '즐기GO, 만들GO' 비대면 진행

무등도서관에서는 2021년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즐기GO, 만들GO'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초등학생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는 손놀이에 초점을 맞췄다. 생활속 필요한 물품 만들기 위주로 진행되며 가족당 1인 접수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후 체험

키트 제공, 집에서 즐기는 체험활동, 사진 인증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 어린이는 동영상이나 설명서를 보며 활동하는 사진 및 완성 작품 사진을 꼭 남겨야 한다. 체험 키트는 어린이실에서 배부하나 코로나 상황으로 휴관 시에는 택배 발송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가위와 붓드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 062-613-77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